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와 러시아의 對영국 수출무역

박 지 배*

1. 서론

18세기와 19세기 전반에 러시아는 대마, 아마, 수지(獸指), 목재, 역청(瀝靑), 철, 마직(麻織) 등 중요한 선박 재료와 산업 원료를 영국으로 수출하였다. 러·영 무역은 생산물의 판로(販路)가 필요했던 러시아나, 값싸고 질 좋은 선박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영국 모두에게 중요하였고, 양국이 맺은 특별한 무역협정의 지원 아래,¹⁾ 18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²⁾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러·영 무역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의 대영(對英) 수출, 또는 영국의 대러 수입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정치적인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좌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흑해 진출을 둘러싼 “1791년의 위기”는 러·영 관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영국의 부르주아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극렬히 반대하였다.³⁾ 또한 1801년 3월23일에 러시아의 황제 파벨(Павел)은 극단적인 반영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상품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1) 1734년과 1766년의 러·영 무역협정은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인들의 특혜를 보장해 주었다.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이하 ПСЗ), т. 9, No. 6652; т. 17, No. 12682.

2) 영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영 수출입 거래량은 1701-05년과 1796-1800년 사이에 파운드화로 약 13.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J. MacGregor(1850), pp. 92-94 참고할 것. 한편 러시아의 저명한 경제사가 미로노프(Б. Н. Митронов)는 18세기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이 금화 루블로 26배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이는 물가상승을 포함한 수치이다. 그리고 미로노프의 계산에 따르면 18세기에 러시아의 물가는 약 5배 증가하였다. Б. Н. Митронов(1991), с. 86 참고할 것. 이상의 수치들을 받아들이면 물가상승을 제거한 러시아 전체 해외무역은 18세기 동안 5.2배 증가한 것이 되어, 13.2배 증가한 대영 무역의 증가속도에 훨씬 못 미쳤다.

3) А. М. Станиславская(1957), сс. 111-118.

수출을 금지시켰지만, 다음 날 궁정 쿠데타로 살해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1세는 같은 해 3월26일에 수출금지 조치를 폐지하였다.⁴⁾ 이렇듯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은 러시아와 영국의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어서, 여러 정치적인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어 러·영 무역의 환경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1807년에 러시아는 프랑스에게 패함으로 틸지트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조약에 따라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에 가담하게 되면서, 러·영 무역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였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는 러·영 무역을 공식적으로 중단시켰고, 이제 러시아는 자신의 상품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으며, 영국 선박 역시 러시아 상품을 얻기 위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되었다.

대륙봉쇄기의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개 대륙봉쇄 전반에 관한 연구 속에서 러·영 수출무역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역사가들은 대륙봉쇄기에 영국과의 무역 단절로 인해 러시아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19세기 중엽에 사프로노프(A. Сафронов)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륙봉쇄가 러시아의 해외무역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영국은 러시아의 곡물, 수지, 가죽, 대마, 아마, 아마 씨, 목재 없이는 지탱하기 힘들었으므로, 제3국을 통해 몇 배의 돈을 주고 그것들을 사야 했다고 지적한다.⁵⁾ 프레드테첸스키(A.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는 주로 당대인의 증언을 사료로 이용하였고, 대륙 봉쇄로 인해 러시아의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였지만, 또한 상당량의 러시아 상품이 밀무역을 통해 영국으로 수출되었다고 언급하였다.⁶⁾ 한편 즐로트니코프(М. Ф. Злотников)는 처음으로 러시아 세관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대륙봉쇄기의 러시아 해외무역을 분석하였다. 그는 대륙봉쇄기에도 러시아의 수출이 판로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고, 영국은 밀수를 통해 러시아 상품을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밝히지는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영 수출무역의 중단이 러시아 해외무

4) ПСЗ., т. 26, No. 19775; т. 26, No. 19783.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올리우스력으로 표시된 날짜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5) А. Сафронов(1854), сс. 5-6.

6)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1931), с. 900.

역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⁷⁾ 반면에 시로트킨(В. Г. Сироткин)은 대영 무역의 중단이 러시아 해외무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파국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즐로트니코프가 러·영 밀수무역을 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립국 무역을 통해 숨통을 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⁸⁾ 라트비아의 역사가 다로웬코(В. В. Дорошенко)는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ведомости экспорта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ах)”를 이용해 대륙봉쇄기에 리가의⁹⁾ 해외무역을 연구하였는데, 리가의 수출은 1808년에 큰 침체를 겪었지만, 1809년부터 급격히 회복하여, 대륙봉쇄기에도 19세기 초와 비교하여 곡물과 목재를 제외하고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대륙봉쇄기에 미국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영국은 리가의 수출무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¹⁰⁾ 포나센코프(Е. Н. Понасенков)는 문체제기의 성격을 띠는 논문에서 1809년 이후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이 회복한 것을 주요 근거로 영국과의 무역 단절이 러시아의 해외무역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¹¹⁾ 한편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M. S. Anderson)은 대륙봉쇄가 영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으며, 대륙봉쇄 기간에 영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영국은 대마를 제외한 러시아 상품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¹²⁾

전반적으로 역사가들은 대륙봉쇄기에 공식적인 대영 수출의 단절이 러시아의 해외무역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 어려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사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주로 당대인의 증언과 법령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세관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의 전체 수출 혹은 리가의 전체 수출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영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을

7)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с. 290-291, 170, 355.

8) В. Г. Сироткин(1969), с. 70.

9) 러시아 군대는 북방전쟁의 와중인 1710년에 리가를 점령하였고, 1721년 전쟁을 종결 짓는 니쉬타트 조약으로 리가를 포함한 발트지역을 공식적으로 병합하였다. В. С. Тельпуховский(1946), с. 164. 이후 리가의 해외무역 거래량은 러시아 전체 해외무역 거래량에 포함되었다.

10) В. В. Дорошенко(1979), сс. 26-28.

11) Е. Н. Понасенков(2002), с. 136.

12) M. S. Anderson(1967), pp. 73, 75.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은 대륙봉쇄기에 영국의 대응에 대한 영국 학자들의 연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영국의 밀수무역과 중립국의 중개무역을 혼동하고 있으며, 결국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내 놓고 있다. 한편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 역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을 검토하지 않고, 전반적인 정황에 의존하여 영국이 러시아 상품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수출에 관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러시아 상품이 어느 정도 영국으로 수출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에서 대영 수출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영국은 어떻게 러시아 상품을 수입할 수 있었는지를 해명하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대영 수출무역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1808-11년에 1) 대영 수출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2)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3)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힘으로 러시아의 대영 수출이 러시아와 영국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에 관한 통계 자료들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남아있다. 1802년부터 발간된 러시아의 해외무역연감은 1808-11년이 누락되어 있어,¹³⁾ 역사가들은 다른 개별 보고서들에 주목하였다. 아놀드(K. Арнольд)가 제시한 러시아의 전체 수출입 거래량에 대한 보고서와¹⁴⁾ 니볼신(Г. Неболсин)이 제시한 러시아의 상품별 전체 수출량이¹⁵⁾ 통계자료로 제시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주요 무역항인 페테르부르크와 리가, 그리고 아르한겔스크의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ведомости экспорта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ах)”가 남아 있어 러시아 상품들이 유럽 어느 국가로 수출되었는지 보여 준다.¹⁶⁾ 리가의 수출량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로웬코가 분석한 바 있지

13)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разных ее видах за 1802-1807 гг.

14) К. Арнольд(1816), Таб.3.

15) Г. Неболсин(1835), ч.1. Приложение.

16) 페테르부르크 수출량 - National Archives of Sweden(이하 SNA), Kommers-Kollegium. Skrivelser från Konsuler St. Petersburg, 1807-1830;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이하 РГИА), ф. 994, Оп. 2, л. 313, л. 62-63; National Archives of United Kingdom(이하 UKNA). FO65/48; FO65/88, 91; 리가 수출량 - State Archives of Latvia(이하 LSA), 4038 F. 2 Apr. 1074a L. 148-171 Lp.; 아르한겔스크 수출량 - Danish National Archives(이하 DNA), Kommercekollegiets. Rapporter

만,17) 나머지 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의 수출량 보고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언급한 자료들은 모두 러시아 세관 기록을 토대로 한 것들이며, 대륙봉쇄기의 대영 수출무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유일하게 러시아 상품들이 유럽 어느 나라로 수출되었는지 보여주는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도 대륙봉쇄기에는 대영 수출을 누락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대영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러시아 상품들이 영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관 장부에는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자료들을 통해서 대륙봉쇄기에 대영 수출무역의 구체적인 동향을 살필 수는 없다. 대신 영국 세관 자료가 대러 수입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8) 영국 자료는 상품별로 영국이 러시아 상품을 얼마만큼 수입하였는지 파운드화로 그리고 영국의 도량형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을 조망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카한(A. Kahan), 카플란(H. H. Kaplan) 그리고 뉴만(J. Newman)이 18세기 영국 세관의 대러 무역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한 바 있지만,19) 19세기의 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러시아의 대륙봉쇄 참여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는 외형상 영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경제 제재(制裁)였으나, 실제로는 영국을 유럽 대륙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 영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프랑스의 대외무역을 확장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1786년에 8십 8만 2천 톤의 선박을 보유한 유럽 최강의 해상 국가였고,20) 러시아 무역에 있어서도 이미 확고한 주도권을 잡고 있어,

frå Konsulatet i Arkhangelsk.

17) 대륙봉쇄기 리가의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는 그라스마니(I. Grasmann)가 먼저 이용하였으나, 대륙봉쇄와 관련하여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은 다로첸코(В. В. Дорошенко)가 처음이었다. И. Э. Грасмане(1968); В. В. Дорошенко(1979).

18) UKNA. CUST4, CUST14.

19) A. Kahan(1985); J. Newman(1985); H. H. Kaplan(1995).

20) H. C. Johansen(1990), p. 15.

18세기 중엽에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협력하여 영국의 주도를 막자고 약속하였던 것이다.²¹⁾ 이러한 국제무역에서 영국의 우위는 프랑스의 해상무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해상무역의 확대 없이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외무대신 샴펜(J. B. Champagny)이 대륙봉쇄를 “영국의 독점으로부터 억압받는 모든 유럽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지만,²²⁾ “모든 유럽”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프랑스”로 바꾼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나폴레옹은 1806년 11월21일 “베를린 칙령(Berlin Decree)”으로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를 공식화하였다. “베를린 칙령”은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에서 온 선박들이 유럽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²³⁾ 칙령을 공포한 나폴레옹에게는 자신의 문서상의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전 유럽의 협조를 얻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의 무역 금지가 가져 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나폴레옹의 계획에 순순히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군사적 수단에 의지하여 자신의 계획을 관철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예나 전투(Battle of Jena)와 프리들란트(Friedland) 전투의 승리로 얻어진 틸지트 조약(Treaties of Tilsit)으로 영국의 산업과 함대에 핵심적인 원료를 공급하는 프리시아와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²⁴⁾ 이러한 사태 전개 속에서 자신감을 얻은 나폴레옹은 1807년 12월17일 “밀라노 칙령(Milan Decree)”으로 대륙봉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밀라노 칙령”은 영국 세관에 관세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영국 선박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중립국 선박이 영국과 유럽 대륙을 중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²⁵⁾ 나폴레옹이 추진한 “대륙봉쇄체제”의 성패는 중립국을 통한 중개무역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는 영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사가 크루제(F. Crouzet)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해외무역은 1802-14년에 대륙봉쇄와 미국과의 대립으로 크게 쇠퇴하였다.²⁶⁾ 영국은 처음

21) W. Kirchner.(1966), p. 135.

22) F. E. Melvin(1919), p. 28.

23) F. E. Melvin(1919), p. 7.

24) F. E. Melvin(1919), pp. 17-18.

25) F. E. Melvin(1919), p. 45를 참고할 것.

26) F. Crouzet(1996), pp. 190-193.

에는 프랑스의 대륙봉쇄에 대해 보복봉쇄로 맞섰으며, 1807년 9월3일에는 결정적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폭격하였다.²⁷⁾ 영국의 이러한 코펜하겐 폭격은 “신의 선물(Godsend)”이었다고 할 만큼, 나폴레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덴마크는 같은 해 9월30일에 프랑스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²⁸⁾ 이제 나폴레옹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신의 대륙봉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보복봉쇄를 하자는 입장도 있었으나, 이러한 보복정책이 프랑스와 그 동맹국에 대한 복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자신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영국 정부는 보복과 함께 프랑스의 동맹국을 회유하여 무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다.²⁹⁾

한편 러시아는 1807년 6월14일 프러시아의 프리들란트(Friedland)에서 프랑스에게 패함으로 같은 해 7월7일 틸지트에서 프랑스와 공수동맹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틸지트 조약(Treaty of Tilsit)”으로 러시아는 동맹국이 제안하는 조건으로 영국이 평화조약을 맺지 않을 경우, 영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선전포고를 해야 했다.³⁰⁾ 결국 이 조항에 따라 러시아는 1807년 11월5일에 영국과 국교를 단절하였고,³¹⁾ 11월9일에 영국 선박과 상품에 대해 엠바고를 실시하였다.³²⁾ 러시아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선박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탈출하였다. 11월10일에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 항에서 20척의 영국 상선이 도주하였으며, 11월11일에서 11월13일까지 리가에서 49척의 영국 선박이 달아났다.³³⁾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대영 대륙봉쇄가 본격화 되었다.

러시아의 대륙봉쇄 참여로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공식적인 무역 루트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로써 1807년에 “대륙봉쇄체제”는 발트해 거의 전 지역을 제어하게 되었으며, 스웨덴만이 예외로 남게 되었다.³⁴⁾ 스웨덴은 처음에 러·불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하였으나, 전쟁에서 패하고 1809년 9월17일에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형식상 대영 봉쇄에 가담하게 되었다.³⁵⁾ 스웨덴이 봉쇄에 가담함으로써 영국 선박은 합법적으로는

27) В. Г. Сироткин(1969), с. 68.

28) R. Ruppenthal(1943), pp. 9-10.

29) A. Ryan(1962), pp. 124-126.

30)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с. 129-130.

31) ПСЗ., т. 29, No. 22653.

32) ПСЗ., т. 29, No. 22664.

33)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с. 137-138.

34) M. Kukiel(1938), p. 10.

단 한 척도 발트해 연안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되었다.³⁵⁾

러시아는 1807년 10월말부터 1812년 8월초까지 약 5년 간 대륙봉쇄에 참여함으로써, 영국과의 공식적인 무역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대영 무역의 금지가 5년 내내 똑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준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륙봉쇄를 연구한 즐로트니코프는 러시아가 대륙봉쇄에 참여한 시기를 1807-10년과 1811-12년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첫 시기에는 봉쇄가 엄격히 적용되었고, 둘째 시기에는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결정적인 분기점은 1810년 8월1일 칙령으로 이 때 러시아 정부는 금지된 상품을 들여 온 중립국 선박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1810년 말에 발표된 스페란스키(М. М. Сперанский)의 “1811년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Положение о нейтральной торговле на 1811 г.)”은 금지 규정의 완화를 더욱 가속화하였다.³⁷⁾ 한편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D. S. Anderson) 역시 러시아의 대륙봉쇄 참여를 1807-10년과 1811-12년의 두 시기로 나누며, 분기점을 1810년 12월 발표된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³⁸⁾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은 그 주요 목적이 대륙봉쇄와 전쟁으로 악화된 러시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으며, 영국과의 무역에서 봉쇄의 원칙은 모두 유지하고 있었다.³⁹⁾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은 중립국 무역을 허용하였으며, 나폴레옹은 이러한 중립국 무역을 대영무역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의 성패는 중립국 무역을 통한 중개무역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중립국 무역 확대는 나폴레옹을 격앙시켰다.⁴⁰⁾ 따라서 1810년 말에 스페란스키가 입안한 러시아의 새로운 정책은 러시아와 프랑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고, 이는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의 전쟁을,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전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러시아는 무엇보다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했다. 즐로트니코프에 따르면 1812년 6월에 영국 상선에 대한 몰수 조치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11일에 리가에서 마스트와

35) В. Г. Сироткин(1969), с. 69.

36) М. Kukiel(1938), p. 10.

37)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с. 159-160.

38) М. S. Anderson(1967), pp. 68-73.

39)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의 9-22항은 대영 봉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출항 선박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ПСЗ., Т. 31, No. 24464.

40) Н. Н. Болховитинов(1966), сс. 405, 409, 411.

다른 종류의 목재를 실은 선박이 영국으로 출발하였다. 또한 7월14일에는 영국 상선들이 공산품을 싣고 백해에 면한 아르한겔스크 항구에 입항하였다.⁴¹⁾ 1812년 7월6일에 스웨덴 도시 외레브로(Örebro)에서 러·영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⁴²⁾ 8월4일에 영국과의 무역재개에 관한 칙령이 발표되었고,⁴³⁾ 9월12일에는 러·영 무역에 관한 특별 선언이 있었다.⁴⁴⁾ 이렇게 해서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3. 대륙봉쇄기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봉쇄기에 러·영 무역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상품은 정상적인 세관절차를 밟아서는 영국으로 수출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세관 장부에는 대영 무역 거래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러시아 무역통계를 통해서는 대영 수출량의 규모를 알 수 없다. 러시아에 있던 많은 당대인들이 영국 상품과 식민지 상품이 중립국 선박을 통해서 혹은 육로 밀수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영 밀수출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영국 상품의 대러 밀수입(密輸入)을 확인하는 것이 러시아 상품의 대영 밀수출(密輸出)을 확인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된 영국 상품이 러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으로도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러시아 상품이 영국으로 갔는지는 영국에서만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영 수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영국 측 사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상품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영국 세관 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표 1) 1801-12년 러시아의 대영 무역 거래량

(단위: 천 파운드, 괄호 안은 1801-05년을 기준으로 한 거래량 지수)

41)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 263.

42) ПСЗ., т. 32. No. 25177.

43) ПСЗ., т. 32. No. 25197.

44) ПСЗ., т. 32. No. 25223.

	1801-05	1808	1809	1810	1811	1812
수출	(100) 2311	(35) 814	(88) 2023	(119)2747	(66)1529	(101) 2323
수입	(100) 1218	(32) 395	(72) 879	(72) 877	(60) 731	(148) 1807

출처: J. MacGregor(1850), Vol. 5.

도표 1은 영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 거래량을 파운드화로 표시한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영국 세관 자료의 수출입 거래량은 18세기 초의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고정 가격으로 측정하여 파운드화로 표시한 영국의 대러 수입액을 실질 가격으로 측정한 러시아 수치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국 세관의 측정 방식은 전체적인 변동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수치들이 인플레이를 제거한 실질 변동량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에게 보내는 한 보고서는 1807년 7월부터 “발트무역이 제로가 되었고, 페테르부르크, 리가, 아르한겔스크의 무역은 중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⁶⁾ 이는 물론 과장된 보고이며 당대인의 증언들만을 가지고 대륙봉쇄 시기의 러·영 무역에 접근하는 경우 실제보다 과장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807년은 본격적인 봉쇄를 앞두고 러시아 상품을 비축하기 위한 영국 상인의 사재기로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진 해였다.⁴⁷⁾ 한편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대륙봉쇄에 참여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1808년에 대영 무역 거래량의 감소는 매우 심각하여, 19세기 초에 비해 수출은 35퍼센트, 수입은 32퍼센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인 1809년부터 대영무역은 급격히 회복하여, 19세기 초에 비해 수출은 88퍼센트까지, 수입은 72퍼센트까지 회복하였다. 그리고 1810년에는 대영 수출이 더욱 증가하여, 19세기 초를 능가하였고, 대영 수입은 1809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811년에는 중립국 선박의 무역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대영 수출입은 크게 감소하였고, 1812년에 와서야 다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세관 자료를 보면 러

45) T. S. Ashton(1960), p. 1. 영국 무역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 N. Clark(1938)을 참고할 것.

46) E. B. Tarle(1912), c. 67.

47) 영국 세관 기록에 따르면 1807년에 영국은 주요 러시아 원료를 전년도보다 더 많이 수입하였는데, 특히 대마, 아마, 마스트용 목재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늘렸다. UKNA. CUST24; M. S. Anderson(1967), p. 71 참고할 것.

시아의 대륙봉쇄 참여로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국 사이의 교역은 이루어졌으며, 1808년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품별로 영국의 대러 수입의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국 세관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먼저 언급하여야 한다. 1760-1825년의 러시아 세관 자료의 대영 수출량과 영국 세관 자료의 대러 수입량을 비교하면, 영국 세관 자료의 수치가 일정하게 적게 나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은 영국과 러시아의 세관 수치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두 세관의 수치가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⁴⁸⁾

(도표 2) 1806-12년 러시아의 상품별 대영 수출량 (단위: 천 푸드⁴⁹⁾)

연도	1806	1808	1809	1810	1811	1812
대마	2280	-	2458	2647	1420	2286
아마	952	-	1295	1493	704	1189
수지	1061	-	659	1122	625	873
목재*	129	-	7	12	57	47
철	1258	-	454	465	537	618
마직**	1531	-	1116	1974	272	147

* 18세기 초 가격으로 천 파운드

** 1760년대 가격으로 천 루블

출처: UKNA, CUST4, CUST14.

도표 2는 러시아의 수출 품목 가운데 대영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상품들의 수출량 변동을 보여준다. 대륙봉쇄가 가장 엄격하게 지켜졌던 1808년의 수치들은 남아있지 않아 상품별로 수출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8년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의 전체 규모가 급격히

48) 영국 세관의 수치가 적게 나오는 것은 러시아 상품들을 영국 도량형으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국 상인들의 허위신고나 밀수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 세관 자료들 가운데 수출 부문은 수입 부문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러시아 수출 상품들은 부피가 많이 나가 밀수가 어려웠으며, 수출 관세 역시 높지 않아 밀수에 대한 유혹이 낮았다. 그래서 당대인들도 러시아의 수출통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영국의 세관 자료에 대한 사료비판에 대해서는 저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Чж. Б. Пак(2004).

49) 러시아 1푸드(пуд)는 40푼트(фунт)이며, 이는 약 16.38킬로그램에 해당한다.

감소한 만큼 개별 상품들의 수출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페테르부르크 주재 프랑스 대사로 근무했던 콜렌쿠르(A. O. L. Caulaincourt)가 1808년 7월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영국과 거래하는 상회들이 대마를 계속 비축하고 있으며, 수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대마 같은 영국 함대에 필수적인 원료들은 1808년에도 일정량이 영국으로 수출되었을 수도 있다.⁵⁰⁾ 한편 1809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회복이 뚜렷하다. 그러나 회복의 정도는 상품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마와 아마의 경우 대륙봉쇄기인 1809년과 1810년의 대영 수출이 1806년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다. 수지의 경우는 1809년까지는 크게 회복을 보이지 못했지만, 1810년에는 1806년의 수준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목재와 철의 경우는 러·영 무역이 실질적으로 재개된 1812년에도 회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직 수출은 1810년까지 회복하는 듯 했으나, 1811년에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도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타르나 피치의 경우 19세기에 영국 측 자료의 측정단위가 바뀌어 일관된 계열의 수치들을 확보하기 힘들지만, 대륙봉쇄기에도 영국이 상당량의 러시아 타르와 피치를 수입해 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영 타르와 피치 수출은 봉쇄 이후에도 18세기 말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았다.⁵¹⁾

이상을 요약하면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상품으로 대체하기 힘든 대마, 아마, 수지, 타르, 피치의 경우 대륙 봉쇄로 공식적인 무역루트가 차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목재, 철, 마직의 경우 대륙 봉쇄를 거치면서 대영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도표 3)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 (단위: %)

	전체 상품	대마	아마	수지	철	마직
1796-00	46	57	51	69	69	66
1809-11	*40	69	75	70	29	**26

* 1809-1810년의 수치

** 1812-15년의 수치

출처: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 자료)LSA, 4038 F. 2 Apr. 1074a L. 15-16 Lp.; r.

50)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 150 참고할 것.

51) J. Oddy(1805), p. 99; UKNA. FO65/48; DNA.Kommercekollegiets. Rapporten från Konsulatet i Arkhangelsk.

Неболсин(1835), ч. 1, Приложение, (러시아의 대영 수출량 자료) UKNA, BT6/230; UKNA. CUST4 (수출가격 자료) LSA. 4038 F. 2 Apr. 1074a L. 15-16 Lp.;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разных ее видах за 1802-1807 г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коммерческие ведомости за 1808-1810 гг.

도표 3은 러시아 세관 자료에 근거한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영국 세관 자료에 근거한 영국의 대러 수입(러시아의 대영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전체 상품'의 경우 러시아의 전체 수출총액에서 러시아의 대영 수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며, 이 때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두 수치의 계산 조건을 같게 하였다. 즉 러시아의 전체 수출총액은 러시아 수출가격을 근거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대러 수입총액도 러시아 수출가격을 가지고 다시 계산한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의 대러 수입에 관한 수치의 경우 허위신고와 밀수로 인해 영국 세관 자료의 수치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어, 러시아의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도표 3의 수치보다 다소 높을 것이다.

위의 도표에 따르면 18세기 말에 러시아의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퍼센트였으며, 러시아와 영국이 공식적으로 무역을 중단한 1809-11년에 40퍼센트로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한편 1809-11년에 러시아의 대마, 아마의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세기 말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여, 대마의 경우 69퍼센트, 아마의 경우 75퍼센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지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륙봉쇄기에도 18세기 말과 비슷하여 69-70퍼센트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철과 마직의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은 대륙봉쇄기에 급격히 하락하여, 18세기 말에는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대륙봉쇄기를 거치면서 3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은 계속되었으며,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대륙봉쇄기에 대영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09년에 러시아 정부는 중립국을 통한 대영 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으나,⁵²⁾ 1810년에 대영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1810년에 중립국 무역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나,⁵³⁾ 영국의 경제가 악화되었던 1810년

52)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с. 156-159.

말과 1811년에 대영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⁵⁴⁾ 이는 러·영 무역이 정치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반적인 영국의 수요변동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대륙봉쇄기 러·영 중개무역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즉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참여함으로써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시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대마, 아마, 수지 같은 주요 수출품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품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철과 마직 같은 제조품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남는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항구들의 수출량 보고서에는 영국 항목이 아예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 상품이 영국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 문제를 언급한 러시아 학자들은 흔히 ‘밀수 무역’과 ‘중개 무역’을 혼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즐로트니코프는 당대인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상품들의 밀수출이 이루어졌고, 대륙봉쇄로 러시아의 해외무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는 반면,⁵⁵⁾ 시로트킨은 밀수의 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립국 무역이 러시아 수출의 숨통을 열었다고 주장한다.⁵⁶⁾ 여기서 시로트킨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립국 선박이 러시아 상품을 싣고 영국으로 갈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중립국 무역(нейтральная торговля)’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개무역(посредническая торговля)’이 될 수 있으나, 대영 수출이 금지된 대륙봉쇄기에는 ‘밀수무역

53) С. А. Покровский(1947), сс. 172-173.

54) 1810년 말에 나폴레옹은 영국에서 자금이 줄어들고, 귀금속 화폐가 퇴장하고, 파산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했다. Е. В. Тарле(1812) с. 78.

55)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 170.

56) В. Г. Сироткин(1969), с. 70.

(контрабандная торговля)'이라는 점이다.

선험적(先驗的)으로 생각할 때 영국 상선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항구에 입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러시아 상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영국 상선을 중립국이나 기타 나폴레옹 동맹국의 선박으로 위장하여 러시아 항구에 들여보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용선비를 지불하고 미국, 덴마크, 프러시아 등의 상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영국의 세관 자료는 국가별로 상품의 수입량을 기록하면서, 자국 상선과 외국 상선의 수입량을 따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영국 상선과 외국 상선이 각각 얼마의 물량을 영국으로 수입하였는지 알 수 있다. 영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영국의 해외무역은 대개 영국 상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시기 가운데 기록이 남아 있는 1809-11년의 자료들을 보면 러시아 상품 대부분이 외국 상선을 통해 영국으로 수입되었다.⁵⁷⁾ 또한 즐로트니코프는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항구들에서 몰수된 선박에 관한 사료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식적인 러·영 무역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은 밀수를 통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밀무역은 주로 중립국 선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영국과 러시아의 선박도 가담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⁵⁸⁾ 그리고 당대인인 잉그리스(J. Inglis)가 지적한 것처럼 영국이 타국 선박을 이용하여 자국의 무역을 수행하는 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으며,⁵⁹⁾ 이는 라이언(A. N. Ryan)이 자세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국 선주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으나,⁶⁰⁾ 영국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남아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대륙봉쇄기에 영국은 자국 상선을 중립국이나 동맹국 선박으로 위장하여 러시아 항구로 들여보내기도 하였으나, 그 보다는 다른 나라 선박들의 증개를 이용하여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¹⁾ 한편 영국이 나폴레옹의 감시를 피해 타국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과의

57) UKNA. CUST4, CUST14.

58) М. Ф. Злотников(1966), сс. 147, 155.

59) J. Inglis(1811), p. 38.

60) A. N. Ryan(1962), pp. 128-129 참고할 것.

61)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 역시 대륙봉쇄 기간에 영국은 대개 외국 상선을 이용하여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조문서를 만들어야 했고, 또한 막강한 해상력도 필요하였다.

대륙봉쇄기에 유럽의 해상 강국들은 라이선스(Licence)를 발행하여 그것을 소지한 선박들의 무역을 허용함으로써 발트무역에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다.⁶²⁾ 실제 발트해상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유럽의 선박들은 여러 국가의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었고, 발트해를 순시하는 순양함에 걸리면 나포를 피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라이선스를 보여주었다.⁶³⁾ 그리고 이러한 라이선스는 공식적으로 발급되기도 하였지만,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었다. 라이선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트해로 떠나는 선박들은 프랑스나 그 동맹국 또는 중립국 선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항상 구비하였고,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러한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서류들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⁶⁴⁾ 이렇게 대륙봉쇄기의 발트 무역은 위조문서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1810년에 영국의 윌리엄 스코트(William Scott)가 “아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가짜 문서로 전 세계에서 무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⁶⁵⁾

한편 영국이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맞서 유럽의 선박들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자신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또한 러시아의 원료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상을 장악할 수 있어야 했으며, 영국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1810년에 페테르부르크 주재 스웨덴 공사의 언급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라이선스 없이는 어떤 배도 발트해에 나타날 수 없었다.⁶⁶⁾ 더욱이 영국 함대는 영국과의 무역을 위해 발트해로 항해하는 유럽 선박들의 호송을 담당하기까지 하여,⁶⁷⁾ 러시아 세관에서 불법 무역으로 적발된 선박들 가운데 영국 함대의 호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선박들이 적지 않았다.⁶⁸⁾ 이렇게 영국은 막강한 해상력을 가지고 유럽의 선박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놓고, 그들의 중개 무역을 통해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트 해상

발트 국가들과 무역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M. S. Anderson(1967), p. 74.

62) E. B. Tarle(1912), cc. 81-82; Ruppenthal(1943), pp. 16-18.

63) R. Ruppenthal(1943), p. 19.

64) A. N. Ryan(1962), pp. 137-138.

65) R. Ruppenthal(1943), p. 16.

66) M. Ф. Злотников(1966), с. 132.

67) A. N. Ryan(1962), pp. 127-128.

68) E. B. Tarle(1912), с. 90; M. Ф. Злотников(1966), с. 154.

에서 영국의 우위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의 위협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륙봉쇄기에 프랑스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덴마크에서는 1807년에 영국의 코펜하겐 폭격에 대한 반영 감정으로 무제한의 나포가 허용되었고, 실제로 대륙 봉쇄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나포 사업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대륙봉쇄기에 덴마크가 나포한 선박은 수천 척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영국, 스웨덴, 미국, 러시아의 선박이었다.⁶⁹⁾ 이렇게 대륙봉쇄기에 발트해에서 영국의 해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동맹국이 갖고 있는 해상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발트해상에서 러·영 무역을 수행하는 선박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도 나포의 위협을 감수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트해상에서의 위협은 러시아와 영국의 상품 가격에 반영되었다.

도표 4는 러시아 주요 수출 상품들의 페테르부르크 상품거래소(Товарная биржа)의 도매가격과 런던 상품거래소(Produce Exchange)의 도매가격을 연평균 외환율을 적용하여 러시아 은화 루블로 통일한 후 페테르부르크 가격을 기준으로 런던 가격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⁷⁰⁾ 따라서 수치가 100보다 크면 런던 가격이 높았고, 100보다 작으면 런던 가격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런던 가격이 페테르부르크 가격보다 높은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그 정도의 변화이다. 즉 1801-05년에는 철을 제외한 러시아 주요 수출품의 런던 가격이 페테르부르크 가격보다 일정하게 44-52퍼센트 정도 높았으나, 대륙봉쇄기에는 런던 가격의 높은 정도가 80-239퍼센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전체 수출과 대영 수출이 이전 시기보다 감소하였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와 영국의 심각한 가격 변동을 수요와 공급 법칙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당시 발트해를 향해하는데 따르는 위협성과

69) R. Ruppenthal(1943), pp. 10, 20.

70) 19세기 초에 러시아 은화 1루블은 18그램의 순은을 함유하고 있었고, 파운드화는 법적으로 111.036그램의 순은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내재된 은 함량으로 볼 때 은화 1루블은 약 38.64펜스와 교환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개입하여 루블과 파운드화의 교환비율은 수시로 변하였다. 도표 4는 이러한 시장 환율을 고려하여 파운드화로 표시된 런던 가격을 루블로 환산한 후에 두 가격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J. McCusker(1978), pp. 1-51; A. Attman(1986), pp. 101-103; H. Storch(1803), ss. 5-7; РГИА., ф. 994, Оп. 1, д. 313, л. 1-31;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прейскуранты за 1806-1811 гг.

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도표 4) 페테르부르크와 런던 가격의 비교
(단위: %, 페테르부르크 가격=100)

	대마	아마	수지	밀	철
1801-05	149	144	144	152	119
1808-11	339	293	180	192	141

출처: (페테르부르크 가격 1801-05년) Ф. Г. Вирст(1807), Таб. No. 3; A. Rasch(1965), p. 61; H. Storch(1803), ss. 65-68; H. Storch(1815), T. 6, Tab. No. 10; РГИА., ф. 994, Оп. 2, д. 313, л. 42-44. (페테르부르크 가격 1806-11년)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преискуранты. (영국 가격 1801-11년) T. Tooke, W. Newmarch(1838), pp. 379-420.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륙봉쇄기에 영국과 덴마크 같은 해상 강국의 나포선이 발트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나포하였으며, 이러한 나포는 상당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다.⁷¹⁾ 따라서 발트해를 항해하는 일은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발트 무역에서 용선비 역시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용선의 대가로 귀금속 화폐를 지불해야 했고, 이는 런던에서 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평시에 1온스에 3파운드 17-18실링이던 금 가격이 1806-08년에는 4파운드로 올랐고, 1809년에는 4파운드 9-12실링까지 치솟았던 것이다.⁷²⁾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스(D. North)는 1750-1913년 간 해상 수송비에 관한 논문에서 1793-1815년의 해상 운송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1808-13년에 높았다고 언급한다.⁷³⁾ 또한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M. S. Anderson)에 따르면 페테르부르크에서 런던까지 대마 1톤 당 용선비는 평시에는 2파운드였으나, 1809년에는 30파운드에 이르렀다.⁷⁴⁾ 이렇게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에서 발트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나포 위험은 용선비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러시아 수출 상품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즉 발트 무역에서 용선비의 급격한 증가로, 영국은 러시아 상품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는 자국 상품을 싸게 판매함으로써 용선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가격은

71) R. Ruppenthal(1943), p. 20.

72) W. Smart(1910), p. 23; J. Inglis(1811), p. 33.

73) D. North(1958), pp. 542, 548.

74) M. S. Anderson(1960), p. 74.

급격히 하락하였고, 영국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양국 가격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고, 이러한 차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발트해를 통과하는 항해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대가로 중립국 선박이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 시기에 해상 수송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었고, 이는 당시 미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⁷⁵⁾

이렇게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로 러시아와 영국의 공식적인 무역이 중단된 1808-11년에도 양국은 유럽과 아메리카 선박들의 중개를 통해 무역을 계속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대영 무역 금지조치를 단호하게 수행하면서도, 중립국 무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나폴레옹은 중립국 무역을 영국과의 무역으로 간주하여, 집요하게 러시아 정부에게 중립국 무역의 제한을 요구하였던 것이다.⁷⁶⁾

5. 결론

이상에서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대륙봉쇄기의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808-11년에 러시아 정부는 영국과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지만, 영국은 비싼 용선비를 물면서 제3국 선박을 통해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였고, 1809-11년에 러시아 수출의 4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였다. 특히 영국은 러시아의 대마, 아마, 역청 그리고 수지 등을 필요로 하였고, 이 상품들의 수입은 봉쇄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륙봉쇄기에 러·영 무역에 대한 기존의 몇몇 입장들을 재고하게 한다.

먼저 러시아 역사가 시로트킨(В. Г. Сироткин)이 즐로트니코프가 러·영 밀수를 과장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대륙봉쇄기에 러·영무역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중립국 무역, 특히 대미(對美) 수출을 통해 부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В. Г. Сироткин(1969) с. 70) 물론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에서 중립국 무역이 중요하였지만, 영국이 빠진 중립국 무역이 아니라, 중립국 선박을 통한 대영 수출이 러시아의 해외무역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75) D. North(1958), p. 542.

76) В. Г. Сироткин(1969), сс. 66, 68; Н. Н. Болховитинов(1966), сс. 406, 411, 415-416 등을 참고할 것.

또한 라트비아의 저명한 경제사가 다로웬코(B. В. Дорошенко)가 리가의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를 근거로 대륙봉쇄기에 리가의 수출무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영국은 리가 무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B. В. Дорошенко(1979), cc. 26-28) 리가의 수출량 보고서에는 영국 항목이 사라졌지만, 이것은 영국이 리가 무역에 참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선박을 이용해 리가 상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역할이 갑자기 증가한 것 역시 미국의 수요가 급증해서라기보다, 미국 선박이 대영 수출 무역의 상당부분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M. S. Anderson)이 대륙봉쇄는 영국보다는 러시아에 더욱 해가 되었으며, 영국은 단지 러시아 대마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며, 러시아와의 무역중단은 영국에게 재앙이라기보다 단지 “불쾌한 일(nuisance)”이었을 뿐이라고 한 것도 옳지 않다.(M. S. Anderson(1967), pp. 73-74) 영국 경제에서 러시아 원료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국은 비싼 용선비를 물면서도 그 동안 이용해 본적이 없는 타국 선박을 통해 대마뿐 아니라 기타 여러 러시아 상품들을 수입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상품은 앤더슨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영국에게 훨씬 중요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에 대한 고찰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러·영 무역이 양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러시아는 대륙봉쇄에 참여하면서 영국과 공식적으로 무역을 중단하였을 때에도, 전체 수출의 절반가까이를 계속해서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어느 나라도 영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의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의 수출무역이 결정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영국은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무역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러시아로부터 대마, 아마, 수지, 역청 등 함대 건설에 필수적인 원료를 수입하였다. 이는 당시 러시아만이 영국의 함대건설에 필요한 양질의 원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국은 자국의 막강한 함대를 유지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이나 마직 같은 제조품의 경우 영국은 자체 생산을 강화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대러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Ф. 994 (Мордвиновы).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XIX и начала XX века. Документы росси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1965), т. 4,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разных ее видах за 1802-1807 гг., СПб.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1-е собрание(1830), т. 26, 29, 31, 32, СПб.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прейскуранты за 1806-1811 гг., СПб.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коммерческие ведомости за 1808-1810 гг.
 Danish National Archives, Kommercekollegiets. Rapporten Frå Konsulatet i Arkhangelsk.
 National Archives of United Kingdom, CUST4, CUST14, CUST24.
 National Archives of Sweden, Kommers-Kollegium. Skrivelser från Konsuler St. Petersburg, 1807-1830.
 State Archives of Latvia, F. 4038 (Рижское общество истории и древностей Остзейских губерний).

2차 자료

- Арнольд, К.(1816) *Мнение о системе тарифа в России*, СПб.
 Болховитинов, Н. Н.(1966) *Становление рус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1775-1815*, м.
 Вирст, Ф. Г.(1807) *Рассуждения о некоторых предмета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управление финансами и коммерци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Пер. с нем. А. В. Брауде, СПб.
 Грасмане, И. Э.(1968) "Значение водного пути по Даугаве для рижской экспортной торговли в конце XVIII 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IX в.," Дис. канд. ист. наук, Рига.
 Дорошенко, В. В.(1979) "Торговля Риги в период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локады," *Известия АН Лат. ССР*, No.7.
 Злотников, М. Ф.(1966) *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локада и Россия*, М.;Л.
 Кулишер, И. М.(1923)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торговли до девятнадцатого века вклю-*

- чительно, Пг.
- Лодыженский, К.(1886)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тарифа*, СПб.
- Неболсин, Г.(1835)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России*, Ч. 1-2, СПб.
- Пак, Чж. Б.(2004) "Источники о российском экспорте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в 1760-1825 гг.," *КЛИО*, No. 4.
- Покровский, С. А.(1947)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М.
- Понасенков, Е. Н.(2002)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кризиса тельзитск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и(1807-1812) и причины войны 1812 г.,"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Вып.8. М.
- Предтеченский, А. В.(1931) "К вопросу о влиянии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локады на состояние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России," *Известия АН Лат. ССР*, No. 8.
- Сафронов, А.(1854) *Коммерческое и промышл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СПб.
- Сироткин, В. Г.(1969) "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локада и русская экономика: (Обзор французской и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опросы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России XVIII 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XIX века*, М.
- Станиславская, А. М.(1957) "Англо-рус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конце XVIII в.," *Докл. и сообщ. Ин-та истории АН СССР*, Вып.12.
- Тарле, Е. В.(1912)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Франции и России при Наполеоне I," *Журн. Мин-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No. 11.
- Тельпуховский, Б. С.(1946) *Северная война. 1700-1721*, М.
- Anderson, M. S.(1967) "The Continental System and Russo-British Relations during the Napoleonic Wars," K. Bourne, D. C. Watt(ed.), *Studies in International History*, London.
- Ashton, T. S.(1960) "Introduction," E. B. Schumpeter(ed.) *English Overseas Trade Statistics 1697-1808*, Oxford.
- Attman, A.(1986) *American Bullion in the European World Trade 1600-1800*, Goteborg.
- Clark, G. N.(1938) *Guide to English Commercial Statistics, 1696-1782*, London.
- Crouzet, F.(1964) "Wars, Blockade, and Change in Europe, 1792-1815,"

-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24, No. 4.
- Graham, G. S.(1939) "Napoleon's Baltic Blockade and the Birth of the Canadian Timber Trade," *Baltic and Scandinavian Countries*, Vol. IV, No. 1(january).
- Heckscher, E. F.(1922) *The Continental System: An Economic Interpretation*, Oxford.
- Inglis, J.(1811) *Commerce as It Was, Is and Ought to be*, London.
- Johansen, H. C.(1990) "Danish Shipping Services as a Link between the Mediterranean and the Baltic 1750-1850," R. Lewis & others(ed.) *Shipping and Trade. 1750-1950: Essays in International Maritime Economic History*, Pontefract.
- Kahan, A.(1985) *The Plow, the Hammer, and Knout: An Economic History of Eighteenth-Century Russia*, Chicago.
- Kaplan, H. H.(1981) "Russia's Impact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Commerce," *Forschungen zur Osteuropäischen Geschichte*, Bd. 29, Berlin.
- _____ (1995) *Russian Overseas Commerce with Great Britain during the Reign of Catherine II*, Philadelphia.
- Kirchner, W. (1966) "Franco-Russian Economic Relations in the Eighteenth Century,"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Europe. 1400-1800, Collected Essays*, Bloomington.
- Kukiel, M.(1938) "Baltic Problems of the War of 1812," *Baltic and Scandinavian Countries*, Vol. 4, No. 1.
- MacGregor, J.(1850) *Commercial Statistics. A Digest of the Productive Resources, Commercial Legislation, Customs Tariffs, Navigation, Port, and Quarantine Laws, and Charges, Shipping, Imports and Exports, the Monies, Weights, and Measures of All Nations. Including All British Commercial Treaties with Foreign States*, Vol. 5, London.
- Macmillan, D. S.(1973) "Paul's Retributive Measures of 1800 against Britain: The Final Turning-Point in British Commercial Attitudes towards Russia," *Canadian American Slavic Studies*, Vol. 1.

- McCusker, J. J.(1978) *Money and Exchange in Europe and America, 1600-1775: A Handbook*, London.
- Melvin, F. E.(1919) *Napoleon's Navigation System: A Study of Trade Control During The Continental Blockade*, New York.
- Newman, J.(1985) *Russian Foreign Trade, 1680-1780; The British Contributio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 North, D.(1958) "Ocean Freight R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1750-1913,"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18, No. 4.
- Rasch, A.(1965) "American Trade in the Baltic, 1783-1807,"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13, No. 1.
- Rose, H. J.(1935) "Great Britain and the Baltic (1780-1812)," *Baltic and Scandinavian Countries*, Vol. I, No. 1.
- Ruppenthal, R.(1943) "Denmark and the Continental System,"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15, No. 1.
- Ryan, A. N.(1962) "Trade with the Enemy in the Scandinavian and Baltic Ports during the Napoleonic War: For and Against,"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5th series. Vol. 12.
- Smart, W.(1910) *Economic Annals of the Nineteenth Century 1801-1820*, London.
- Storch, H.(1803) *Historisch-statistisches Gemalde des russischen Reichs am Ende des achtzehnter Jahrhunderts. Supplementband zum funften, sechsten und siebenten Theil*, Leipzig.
- _____ (1815) *Cours d'économie politique, ou Exposition des principes qui déterminent la prospérité des nations*, T. 6, St. Pétersbourg.
- Tooke, T., Newmarch, W.(1838)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from 1793 (to the Present Time)*, London.

Резюме

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локада Наполеона и экспорт России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Пак, Чжи-Бэ

Экспорт России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в XVIII и начале XIX в. являлся неременным для обеих стран и, не 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епятствия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лся. Одна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оссия примкнула к наполеоновской блокаде в 1807 г.,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Англией разорвались. И так в периоде 1808-11 гг.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официально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ие товары в Англию, и английские корабли не могли прибывать в российские порты. Однако, во время блокады 1808-11 гг., когда торгов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Англией были разорваны,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их товаров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продолжался, тем более доля Англии в общем российском экспорте не уменьшалась, даже в отношении некоторых важных товаров, как пеньки, льна, сала и т.п., увеличивалась. Англия импортировала важное российское сырье для создания своего флота, на фрахтованных кораблях, которые почти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о того момента, хотя цена на фрахт была очень высоко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облокадным периодом. Благодаря спросу Англии на российские товары Россия могла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ю внешнюю торговлю до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Все это заставляет изменить имеющиеся мнения по поводу роли Англии в российском экспорте во время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локады. Послед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одчеркивают роль нейтральных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и прост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ли российские товары из России в Англию, а настоящий спрос выходил из Англии. В XVIII и начале XIX в.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их товаров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для обеих стран являл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и незаменимым.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5. 10. 6
논문심사일:	2005. 10. 20 ~ 2005. 11. 15
심사완료일:	2005. 11. 21